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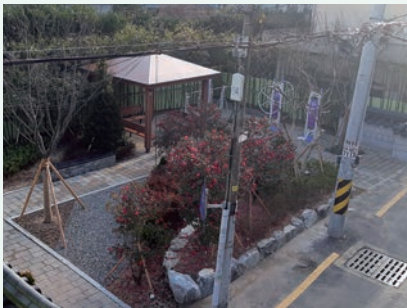
국민 건강 위한 지역별 쉼터 조성 계획

전라남도 산림휴양과
2020.2.6.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2020.1.15.

경기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정책개발팀
2019.12.18.

경기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정책개발팀
2020.1.20.



부산진구 범전동 썸지숲

출처: 부산광역시. (2020). 부산시, 절감한 유료도로로
통행료로 썸지숲 조성. 1월 15일 보도자료.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하는 '스마트가든' 조성

전라남도는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스마트가든을 조성한다. 병원, 터미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기관과 산업단지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자동 관수장치 등 식물재배 자동화 설비와 수직 벽면 등 초화류 식재 정원, 쉼터 조성 등을 3,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지난 2월 14일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접수를 마쳤으며, 위치 및 규모, 전기수도 및 시설사용의 용이성, 지속가능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다중이용시설 2개소와 산업단지 등 기업체 25개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썸지숲' 조성

부산시는 시민들의 녹색생활권을 보장하는 도시숲 확대를 위해 사업대상지 11곳에 썸지숲 조성사업을 마쳤다.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썸지숲은 꽃과 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썸지숲을 구성하는 다양한 수목은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환경문제 해결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리는 녹색서비스를 향상시켜 규모 대비 시민만족도가 높다.

한편, 지난해 설 명절에 절감한 유료도로로 통행료 16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료도로가 위치한 서부산권(7곳)을 중심으로 썸지숲이 조성되었다.

경기도, 도시공간 내 '보편적 쉼 공간' 추진

경기도는 지난 12월 18일, 공공 영역의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월 20일까지 시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도민 의견을 접수받았다.

도로·광장, 하천, 공지 등 공공 공간 중 상대적으로 쉼 공간이 부족해 평소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장소를 추천받아 현장여건, 유동 인구 등을 검토하고, 이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상지 공모 신청 결과를 종합해 총 6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의 도시공원 면적이 1인당 10~30m² 수준인데 반해 경기도는 1인당 9.6m²에 불과하고, 기존 휴식 공간마저 카페 등 유료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보편적 쉼 공간이 부족하다. 경기도는 이번 추진 계획을 통해 벤치 설치 및 공개공지·썸지공원 조성 확대, 공공 공간의 정상화 등 3대 추진전략을 구성해 차별 없는 쉼 공간 조성에 나선다.